

대한상의 브리프

중앙일보 산업1팀 이소아 기자



제123호 2020년 5월 25일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시대에 원격의료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원격의료 반대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앞당긴 원격의료 시대, 환자도 의사도 기회다

커다란 위기는 종종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곤 한다. 아주 짧은 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수십 년간 견고했던 판도를 뒤바꿔놓는 것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이 꼭 그렇다. 전염력이 매우 높아 근무·교육·쇼핑·전시·공연·스포츠·취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원격 활동이 흑 들 어왔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시대에 가장 논란이 뜨거 운 분야가 원격의료다. 일반인 입장에서 원격의료의 핵심은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0년째 법으 로 금지돼 있다. 2010년 18대 국회부터 직전 20대 국회까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여지를 터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6개국, 주요 선진국으로 꼽히는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국가들이 모두 원격医료를 허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에서 원격의료의 ‘금기’시 되는 건 왜일까

원격의료는 크게 두 가지 나뉜다. 우선 의사가 전화·영상·채팅 등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상담·관리해 주는 ‘원격모니터링’이다. 둘째, 의사가 전화·영상·채팅 등 원격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약까지 처방하는 ‘원격진료’가 있는데 이게 더 논란이 된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격의료 시스템 흐름도]



※ 출처 : 중앙시사매거진 / 자료 : 보건복지부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원격의료를 강하게 반대하는 건 개원의들이 주요 회원인 대한의사협회다.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전화·영상을 통해 이뤄지는 진료는 오진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정보기술통신(ICT) 장비 여건이 좋은 대형 병원(3차 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 병원(1차 병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할 거라는 주장이다. 셋째,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디지털 데이터화 하다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돈벌이’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렇다 해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규제를 고수한다면 누릴 수 있는 장점까지 그 기회를 잃게 된다.



[원격의료 가로막는 관련규제]

관련법률	규제 현황
의료법	· 개인 의료정보를 병원 외부 서버에 보관·전송 제한 ·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상담 불가
개인정보 보호법	· 환자 데이터 수집·활용 불가 · 앱에 쌓인 데이터를 병원 진료에 활용 불가
국민건강 보험법	· 직접 의료행위만 보험적용 가능해 앱과 디지털 기기에는 적용 불가
약사법	· 온라인 통해 약 처방 및 배송 불가

※ 출처 : 중앙일보

일례로 정부는 코로나라는 비상사태를 맞아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괜찮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0일 까지 26만 2121건이나 이뤄졌다. 경증 환자 등이 머물던 일부 생활치료센터에선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환자는 증상과 체온을 입력하고 의료진은 실시간으로 그 입력치를 체크하고 분석하며 코로나에 대응했다.

화상을 통해 환자 얼굴을 보면서 상담도 할 수 있었다. 고도의 기술은 아니지만, 원격의료에서 소기의 효과와 가능성을 엿본 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원격의료 제도는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까지는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지금의 원격의료 규제는 금지 대상을 지정해 놓고 나머지는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를 빼고는 모두 금지하는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다. 정부 역시 코로나19라는 ‘게임체인저’를 받아들여 10년간 굳게 닫혔던 원격의료의 문을 열어보려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



개요	환자가 전화로 의사 진단·처방 받는 것 허용
기간	2020. 2. 4. 부터 추후 공지하는 시점까지
대상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의원급, 병원, 종합병원 등
진료 대상	질환종류 등에 제한 없이 의사 재량에 맡김
법적 근거	의료법 제44조에 따른 보건의료 시범사업

※ 출처 : 한국경제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점을 명확히 알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는 해결책 마련도 수월하지 않을까.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일례로 부정확한 진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격모니터링부터 시작하되, 만성질환자나 경증 환자 에게만 원격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의 경우 합병증이 없는 만성질환의 원격의 료는 1차 의료기관(개인병원)과 2차 의료기관(전문 병원)에만 허용해 주는 식으로 질병의 경중에 따라 원격의료 범위를 제한하면 된다. 대형병원이 원격의 료 플랫폼을 만들어 전국 의료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환자 개인정보 전송 역시 본인 동의 아래 범용 온라인이 아닌 보안 수준이 높은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별개로 원격의료는 고령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유용하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나 이동이 부담스러운 노인이나 장애인, 격오지에 사는 사람의 경우 굳이 약을 처방받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은 증상을 상담하기 위해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한국이 허용하든 안 하든 이미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은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2020년부터 연평균 15.1%씩 성장해 2027년 1550억 달러(약 19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



※ 출처 : 중앙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 속에 전 세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사업 모델 상당수가 원격의료 기기와 시스템을 포함한 헬스케어에 집중돼 있다. 한국도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 4월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분야 1위가 원격의료였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가지고도 국내에서 법에 막혀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는 처지다. 이 중엔 나랏돈을 들여 개발한 기술도 꽤 된다. 세계 최초 혈압 측정 모바일 앱(삼성전자), 체지방 분석 반도체와 심전도계(헬스리안), 뇌졸중 등 마비 환자용 재활 기기(네오펙트)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원격의료 기업들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한 자문과 검증을 받고 싶어 한다. 의료인들이 헬스케어 기업들의 자문에 참여하고 기업과 병원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며, 나아가 창업의 주체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세계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의 기회를 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국제 보건 분야에선 ‘K방역(코리아 방역)’이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의료계가 세계에서 소프트 파워를 알릴 큰 장이 열리고 있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20년 5월 25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8	2019 ^(E)	IMF		OECD	
			2020 ^(P)	2021 ^(P)	2020 ^(P)	2021 ^(P)
한국	2.7	2.0	-1.2	3.4	2.0	2.3
세계	3.6	2.9	-3.0	5.8	2.4	3.3
미국	2.9	2.3	-5.9	4.7	1.9	2.1
중국	6.6	6.1	1.2	9.2	4.9	6.4
일본	0.8	0.7	-5.2	3.0	0.2	0.7
EU	1.9	1.2	-7.5	4.7	0.8	1.2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7	2018	2019	'19.12월	'20.1월	2월	3월	4월
원/달러	1,131	1,100	1,166	1,176	1,164	1,194	1,220	1,225
원/엔(100엔)	1,009	996	996	1,077	1,065	1,085	1,135	1,135
원/위안	167.5	166.4	166.4	167.6	168.0	170.5	173.8	172.9
원/유로	1,276	1,299	1,299	1,306	1,294	1,302	1,350	1,332
유가(Dubai)	53.2	69.7	63.5	64.9	64.3	54.2	33.7	20.4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7	2018	2019	'19.12월	'20.1월	2월	3월	4월
산업생산	2.6	1.6	0.6	3.9	-0.6	4.9	0.6	-
소매판매	1.9	4.3	2.4	4.5	1.8	-2.4	-8.0	-
설비투자	14.4	-3.6	-6.2	11.1	-4.1	15.1	9.8	-
수출	15.8	5.4	-10.4	-5.3	-6.6	3.8	-0.7	-24.3
수입	17.8	11.9	-6.0	-0.8	-5.2	1.5	0.3	-15.9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